



아이들과 함께 마시는 우유

서울 남성국민학교
교사 이 경 미

작년 6월경의 일인 듯하다. 여느 때처럼 초여름 아침의 싱그런 햇살을 가르며 언덕배기에 있는 학교를 향해 출근길에 나섰다. 정문에 들어서며 다시 4층에 있는 나와 꾸러기들의 공간으로 조금 험뎠으며 들어선다.

“안녕! 애들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이쿠, 오늘은 선생님께 첫인사를 놓쳐 버렸어.”

아침인사 경쟁에서 이긴 나는 승리자처럼 기가양양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책상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무심코 책상을 열어보다 다시 닫는다. 그때,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열었다. 그속에는 작은 선물상자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열른 뜯어 보았다. 선물상자 속에는 시계반지가 들어 있고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속 썩으셨죠.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죄송한 마음도 들고 선생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샀어요. 기쁘게 받아 주셔요. 길거리에서 산 시계반지인데 깎아서 삼천원 주었어요. 그 돈은 다음달 우유값에다 제돈

삼백원을 합한 거예요. 이 일은 비밀이에요……선생님의 제자 윤경울림.”

그때, 윤경이는 애써 내 시선을 피하며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내 가슴속엔 묵직한 무엇이 있는 듯, 기쁘기도, 화가 나기도, 안타깝기도 하여 뭐라 말할 수 없어 한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다. 물론, 그 후에 윤경이에게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여 선물은 고맙게 받되, 우유는 먹어야 한다며 대신 우유값을 내주었다.

나는 그 일로 어린이들은 우유를 어떤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다.

우유값을 다른 곳에 쓰려는 생각을 한 것은 우유가 별로 소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윤경이를 볼 때 알 수 있다. 그후로 윤경이가 우유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린이의 용돈부재에서 원인을 찾아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들은 어떠할까? 50명의 학급 어린이 중 우유급식을 하는 어린이는 30명 남짓 하다. 그러나 그중의 일부 어린이들은 우유를 먹기 싫어해서 신청해놓고도 그냥 집으로 가져가거나 책상 속에 놓

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20명 가운데 13~15명 정도는 우유를 싫어해서 어머니께 우유값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어머니들도 자녀들에게 우유먹이기에 적극적으로 힘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그 나머지 어린이들은 먹고 싶어도 매달의 우유값이 실제로 가게에 부담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다 진보된 미래를 위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도록 힘써야 할 교사의 입장에서 그 사실들은 그냥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 몸과 마음의 왕성한 성장, 그리고 사고력의 신장일 것이다.

그러면, 우유급식과 함께 심신의 성장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필요불가결한 단백질과 칼슘등이 풍부한 식품으로 우유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흔히 먹는 식품의 칼슘량을 비교할 때 밥 한 공기(15mg), 포도 한 송이(30mg), 멸치 10g(43mg)에 비하여 우유200ml(370mg), 치즈 슬라이스 1장에 120mg이 있다고 하니, 성장은 곧 우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하다. 그리고 몸이 건강할 때 우리의 사고도 적극적이며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음은, 어린이들의 사고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람의 뇌세포와 두뇌활동은 매일 섭취하고 있는 영양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우유 속에 있는 가락토스를 비롯한 단백질, 비타민 B₁, 비타민 B₆, 비타민 B₁₂ 등 각종 영양소는 두뇌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이러한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는 우유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왕성한 사고력으로 인해 똑똑한 어린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척박한 땅에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 수확할 때의 효과

다는 비옥한 땅에 씨를 뿌려 수확할 때의 효과가 큰 것 처럼……。 그러기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은 “한 나라가 그 장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먹여두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런 것일까? 해마다 학급을 맡아 보면 얼굴색이 좋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어린이는 영락없이 간식시간에 우유를 먹는다. 그런데, 얼굴색이 안좋고 성격이 소극적인 어린이는 우유급식을 앓고 있고 우유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먹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야기를 잠시 돌려보자. 현재의 유가공업계가 불황을 맞고 있고 재고량이 심각한 상태라고 하여 여러 방면으로 소비량을 늘리기에 힘쓰고 있다 한다. 여러가지 대책 중의 하나로, 학교 급식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는데 현재는 정부 보조금을 전체 급식 아동에게 고루 보조하여 시중가보다 거의 절반 정도 싼 가격으로 어린이들이 우유를 마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유를 마시고 있는 어린이와 그 부모들은 우유 가격을 시중가보다 약간 싼 범위내에서 다소 인상하더라도 우유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마실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렇게 우유가를 인상한 금액으로 학교급식 형편이 안되는 극빈아동들에게 무상 보조한다면 유가공업계의 불황타계 이전에 국민 체력 증진에 기여할것이고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선에 있는 교사들에게 우리 유가공업계의 현실을 인식시키고 극빈아동에게 무상 보조하고 있는 기업의 윤리성을 보여줄 때 교사들은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애쓸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 학급만 해도, 우유 급식을 하지 않는 어린이 중 극빈아를 제외한 15명 가량의 잠재 수요자와 우유를 기

피하는 어린이들에게 우유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홍보할 때 학교의 우유 급식 확대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힘쓰고자 한다.

유가공업계의 불황타계를 위해 유가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제언 중의 하나가 우유 급식의 필요성을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인식하고 급식 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문교부의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글을 보았는데, 나와 생각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 어린이들에게 우유 홍보를 하는 사람은 결국 일선 선생님들이고 그들 스스로가 필요성과 당위성을 느낄 때 그것은 실효를 거두는 홍보가 될 것이다. ‘문교부의 행정 지도’라는 어투에서 오는 거리감도 그렇거니와 위에서 내린 지시 때문에 우유 홍보를 한다면 절대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확신한다. 문제는 스스로의 필요성 인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사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는가? 그것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기업의 윤리성이 보여지고 우리의 유업계가 직면한 현실을 인식할때 그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작년, 첫아기를 임신하여 우유 1ℓ를 배달 신청해서 매일 500ml씩 마시니 덩달아 아기 아빠도 500ml씩 마시게 되었다. 그러더니 배변도 좋고 혈색도 좋아져서, 회사의 많은 업무량 때문에 남들은 보약이다 뭐다 해서 싸 들고 다니는데 아기 아빠는 끄덕하지 않는다고 남들이 비결이 뭐냐고 묻길래 우유덕이라고 말했다 한다. 지금도 그이는 하루 500ml 이상을 꼭 마신다. 나는 집에서는 특별히 마실 여유가 없어 학교에서 200ml씩 신청해 놓고 아이들과 함께 마신다. 아이들과 함께 마시는 우유.

“좋은 것이니까 선생님도 드시는구나...”라고 아이들은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유 급식 신청을 할 때 우유 신청을 받는 학급 반장에게 “선생님 것도 하나!”하고 말하고 부터는 아이들의 우유 급식 신청이 다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유 급식의 실제적인 교육의 하나이리라고 여겨지는 일이다.

